

“판자촌 없애라” 막 올린 시진핑판 ‘새마을운동’

5년간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

자연 보호·빈부격차 해소 병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7년 만에 소집된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2020년까지 도시 내 판자촌을 모두 없애고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도시 건설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21일 베이징(北京)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 등 7명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도시공작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0년까지 도시 내 판자촌과 농촌 주택을 개량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침은 중국 지도부가 미래 5년간 추진할 국가정책의 초점을 빈부격차 해소에 맞춘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시진핑 체제는 2020년께 ‘전면적 사小康(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른바 중국의 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정책기조는 최근 확정된 13차 5개년계획(13·5 규획~2016~2020년)에 명시됐다.

중국 국무원은 현재 2020년을 목표로 1억 개의 도시 판자촌과 농촌 주택을 개량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개혁개방 이래 세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속도가 빠른 도시화 과정을 경험했고, 세계가 주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는 환경과 삶의 질이 반영된 ‘중국 특색의 도시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창조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동향유, 인간본위, 과학발전, 도시발전 방식 전환, 도시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도시병 제거, 도시환경의 질·인간생활의 질·도시경쟁력 제고 등이 새로운 도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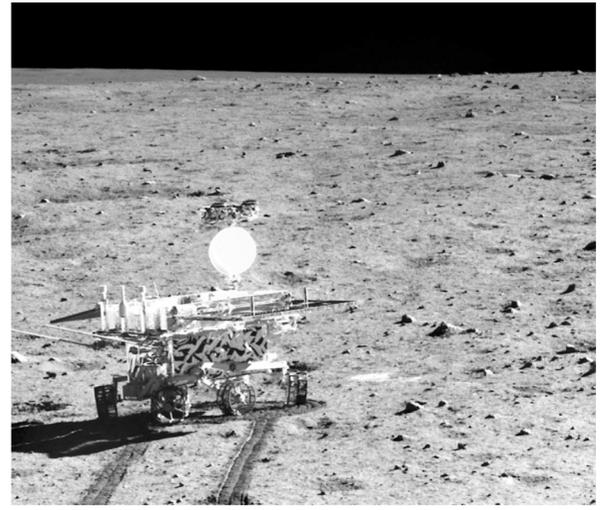
전 개념과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도시공작은 하나의 시스템적 공작”이라며 자연존중, 자연순응, 자연보호 등을 통해 도시의 생태환경 개선을 부각하며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 도시건설 과정에서 스모그 등 환경오염 문제가 가중치를 부여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 지도부가 중앙도시공작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첫 회의를 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중국의 도시건설 정책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달 탐사차량 옥토키호.

(가디언 캡처)

중국 달 탐사로봇, 새로운 암석 발견

티타늄·산화철 성분 현무암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이 보낸 달 탐사 로봇이 기존에 미국과 러시아가 발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현무암을 달에서 발견, 과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중국 과학자들이 달에서 과거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 우주인들이 채취한 것과 완전히 다른 광물 조성(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조합)을 확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3년 달 탐사위성 창이(嫦娥) 3호를 통해 달에 착륙한 탐사차량 ‘옥토키(玉兔·중국명 ‘위투’)호’는 최근 고대 용암이 흐른 곳을 탐사하던 중 새로운 암석을 확인했다고 과학자들이 전했다. 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지구인 모두가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발견

은 아니지만, 행성학자들에게는 놀라운 발견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달 탐사 작업으로부터 얻어진 현무암 표본은 높은 티타늄을 지니는 것과 낮은 티타늄을 지니는 것 등 2가지 차이로 구분됐다. 하지만, 40년 만에 이뤄진 달 착륙 탐사를 통해 달에서 기존의 2가지 방식으로 나뉘던 암석이 아닌 중간 정도의 티타늄과 풍부한 산화철을 지닌 암석이 발견된 것이다.

이번 중국의 획기적인 발견은 더는 달이 미국, 러시아, 유럽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일본, 인도, 중국 모두 달 궤도선을 자국의 로켓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아폴로 프로그램의 종결 이후 미국 과학자들이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을 통해 달 탐사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중국은 직접 탐사 위성을 달에 착륙시켜 로봇으로 달을 탐사했다.

/연합뉴스

모란봉 철수 김정은

시진핑에 ‘뒷북’ 사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달 초 있었던 모란봉 약단의 갑작스러운 철수를 사과하기 위해 각료급 특사를 최근 베이징(北京)에 보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칼럼에서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나가자와 가쓰지(中澤克二) 편집위원의 기명칼럼에서 북·중 관계를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정은은 아주 최근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에) 사과하기 위해 각료급 인사를 베이징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은 “내년에 모란봉 약단을 다시 중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하고 시는 36년 만에 내년 5월 열릴 예정인 조선노동당대회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지는 모란봉약단의 중국 방문과 동시, 또는 조금 사이를 두고 김정은 자신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다는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산사태 실종자 구조

지난 20일 중국 광둥성 선전 광명성구의 류시공업원 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91명이 실종됐다. 사진은 구조대원들이 굴삭기를 이용, 무너진 구조물 잔해를 치우는 모습.

/연합뉴스

막말 트럼프, 이번엔 힐러리에 ‘여성 비하 발언’ 논란

미국 대선 공화당의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여성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성적 비속어를 동원한 막말을 퍼부어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 주 서남부의 그랜드 래피즈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클린턴 후보가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한 사실을 거론하며 “클린턴이 이걸 판이었는데, 오바마에 의해 ‘X됐다’(got schlonged). 클린턴은 젖다”고

말했다.

‘슐롱’(schlong)은 남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이디시어(Yiddish : 중앙-동유럽권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트럼프는 클린턴 후보가 경선에서 패배한 것을 신랄하게 표현하기 위해 동사형으로 바꿔 사용한 것이다.

평소 독설과 막말로 유명한 트럼프이지만 이번에는 공개 석상에서, 그것도 상대 당 경쟁 여성 후보를 상대로 금기시된 성적 비속어까지 노골적으로 사용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슴롱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주로 선거에서 ‘깨졌다’는 뜻에서 이 속어를 최소한 차례 이상 사용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WP)의 보도다.

트럼프는 2011년 “공화당 소속의 유명 여성인 제인 코원이 민주당의 캐시 호클에 의해 (하원의원 선거에서) ‘X됐다’(get schlonged)”고 말한 바 있다고 WP는 전했다.

/연합뉴스

이번 막말을 계기로 트럼프의 과거 여성 비하 발언이 다시금 조명을 받는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8월 6일 공화당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켈리가 공격적인 질문공세를 퍼쳐 토론이 끝난 뒤 CNN 인터뷰에서 “켈리의 눈에서 피가 나왔다. 다른 어디서도 피가 나왔을 것”이라며 켈리가 월경 때문에 예민해져 자신을 공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프랑스 정부, 테러 추가시도 적발

지난달 130명의 사망자를 낸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가 추가 테러 시도를 적발했다.

베르나르 카즈니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중부 오를레앙에서 군인과 경찰관 등에 대한 테러 계획을 적발해 저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세와 24세 프랑스인 2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카즈니브 장관은 이들 용의자가 시리아에 있는 프랑스 지하디스트(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접촉해 왔다고 설명했

다. 카즈니브 장관은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군인, 헌병, 경찰관을 상대로 테러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자백했다”면서 “시리아에 있는 프랑스 지하디스트가 테러 배후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즈니브 장관은 올 한 해 총 10번 테러 시도를 저지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샤를리 에브르 테러와 지난달 파리 연쇄 테러 등 대형 테러가 잇달아 발생했다.

/연합뉴스

병원최적 2층 상가매매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적합

- 전용 289㎡ (2/3 현재 카페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꿨습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